

혁신도시 조성 10년...이동권 열악한 '교통사막' 여전

광주·나주 버스 중 혁신도시 경유 노선 13개 불과...공동혁신도시 무색 밤 11시 이후 대중교통·대리기사도 단절...별도요금 체계 개선 등 절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밤 11시만 지나면 택시가 운행하는 안하고, 대리운전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야간 교통 서비스가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체되고 있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서둘러 설치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자가용 없이 살기 힘든 도시', '말뚝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의 자조섞인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와 나주가 운영하는 버스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은 15개로 확인됐다. 이 중 광주와 나주 구도심 등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 가능한 노선은 7개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버스 노선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배차 간격이 길다.

나주시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 가운데, 혁신도시에서 광주로 갈 수 있는 광역버스인 997번과 998번은 배차간격이 평균 45분, 나주 구도심으로 향하는 7000번, 7001번, 7002번 역시 배차간격이 40분에 달했다. 가장 배차간격이 짧은 161번은 35분이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좌석02번 역시 25분 배차간격으로 일반 시내버스보다 대기시간이 길다.

또 혁신도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제한적이라는 점, 광주와 나주 구도심 등에 도착한 뒤에라도 지하철 또는 다른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데 대기시간도 길어지자 주민들은 수년째 버스 노선 확대 등 '이동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해 9월 '콜버스' 운영을 도입해 혁신도시 내 주민 이동권 개선 등에 나섰지만, 콜버스가 혁신도시 내 버스 승강장 65개소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편의성은 증진됐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버스 막차가 끊긴 밤 11시 이후 시간대에는 사실상 택시, 대리기사도 빛가람혁신도시 운행이 거의 단절되고 있다.

택시와 대리기사는 "늦은 시간에 혁신도시로 들어가면 다음 콜을 잡고 광주 등으로 나오려면 운이 나쁜 경우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거나 심지어 혁신도시 콜을 잡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나주빛가람혁신도시 택시 이용시 할증 30%를 추가하는 혁신도시 할증제 운영을 도입했다. 혁신도시 할증제는 앞서 지난 2015년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 도입했다가 주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광주시는 "광주택시 편도요금 조건표"를 배포하고,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빛가람혁신도시로 향하는 고객들은 택시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1만원 가량 더 지불하게 됐다.

광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개선을 통한 도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광주 택시기사들이 빛가람혁신도시로 갔을 때 투자하는 거리와 시간 대비 택시 요금이 너무 적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요금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주시는 30% 할증을

추가 지불하는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대신 광주 택시기사들이 빛가람혁신도시 운행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할증제가 도입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사례가 지역 온라인 카페 및 시청 민원창구 등에 잇따라 게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빛가람혁신도시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박용희(33)씨는 "지난달 25일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뒤 밤 10시 30분께 송정역에 도착해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는데, 목적지가 '나주혁신도시'라고 하자 가장 맨 앞줄에서 서있던 택시기사가 '지금 혁신도시 안갑니다'라며 승차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콜이 잡히지도 않았으면서 맨 앞줄에서 손님 기다리던 택시가 그대로 출발해 한바퀴를 돌더니 대기 줄 후열로 다시 들어오더라"고 분개했다.

택시기사들의 부당요금 요구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광주에 처음 방문한 만큼 어플을 통해 어느정도 택시 요금을 계산해봤고, 택시 미터기에 표기된 금액도 비슷했는데 택시기사가 하차 직전 혁신도시는 30% 할증이라고 뒤늦게 설명했다"며 "지자체가 배포한 조건표를 보여주면서, 추가요금이 정해져있으니 지불하라는 통보에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요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할증 30%를 추가한 별도 요금체계만 도입했을 뿐, 승차거부를 한 택시들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빛가람혁신도시 택시 요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불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만간 별도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드론 활용...간척지 불법 채배 잡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국가관리 간척지 담당 직원 14명 전원이 '드론 조정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2025년부터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를 대상으로 타작물 채배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간척지 관리로 불법 채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전KPS, 매출액 3545억·영업익 420억원

3분기 실적 발표...전년비 15% ↑

한전KPS가 지난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545억원, 잠정 영업익 42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12일 한전KPS가 공시한 '한전KPS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3545억원으로, 전년 동기(3323억원) 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해외법인 매출과 원자력 발전소 정비물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외주비와 자재비 등의 절감 노력으로 영업비용 증가폭을 둔화시켜 전년 동기(364억원)보다 15.3% 증가한 42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서 한전KPS는 연결기준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조 125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168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13.4% 증가한 339억원을,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실적보다 17.5% 증가한 13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환율상승 둔화에 따른 외환손익 감소 등으로 영업외손익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KPS 관계자는 "해외원전 정비서비스 수출 등 신성장사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aT, 유럽 현지시장서 'K-푸드' 수출길 찾는다

소비자별 시장 세분화 등 논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지난 7일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

홍 사장은 지난 7일 aT 파리지사서에서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내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 사장은 논의 자리에서 "유럽은 언어와 인종, 문화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소비자별 시장을 세분화하고, 전략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홍 사장은 파리 7구 북마르세 백화점 식품관을 방문, 한국식품 입점 현황을 살폈다. 또 한국의 명인이 생산한 전통장류 등을 전문 취급하는 현지 수입업체 'Riz et co'를 만나 K-푸드 수입 관련 현지 트렌드와 애로사항들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홍 사장은 같은날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및 문승현 주프랑스대한국 대사관 대사를 만나 'K-푸드'가 프랑스 등 유럽

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켄텍 노원비하인드, 디지털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인공지능 교실 ALC 모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의 교원창업기업인 노원비하인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2024 디지털이노베이션'에서 IT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디지털이노베이션 본 심사에서는 370여개의 신청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및 기술서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층인터뷰 등 3차에 걸쳐 각 분야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노원비하인드는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반 다중학분석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실 ALC' 모델을 선보였다.

해당 모델은 교실 수업 중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더

욱 효과적으로 학생 맞춤형 피드백 및 수업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비하인드는 이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교육공학회(AECT)로부터 지난 2021년 최우수개발상, 2023년 최우수연구상을 수상했고, 이탈리아 A "디자인 어워드&컴퍼티션"에서는 처음으로 혁신디자인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경 노원비하인드 대표는 "한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의 문제점과 니즈를 수업시간 내에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실 수업 중 학습과정을 데이터화한 인공지능 교실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 이를 통해 향후 수업모델, 학습모델,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미래교육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